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패널·빅데이터연구팀
		담당자	최은영 선임연구위원(02-398-7782)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국 석학이 함께 그린 AI 시대, 영유아정책의 미래

- KICCE, 「영유아정책 국제포럼」 성료-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9월 18일(금) 「영유아정책 국제포럼」을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AI 시대, 기초교육으로서 영유아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영국·미국·벨기에·프랑스(OECD)·대만 5개국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 학회·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다수의 시청자가 함께했다.
- 먼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황옥경 소장은 개회사에서 영유아기를 “한 사람의 인생이 쓰이기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비유하며, 영유아정책은 한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시대에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가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영유아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영유아정책을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이자 국가 인적자본의 기초를 다지는 융합적 과제로 규정했다.



- 오전의 기조강연을 맡은 Eva Lloyd 교수는 ‘민영화(privatisation)’와 ‘시장화(marketisation)’의 개념을 구분해 제시한 뒤, ECEC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비용·접근성·이용 가능성 등 ‘직접 장벽’과 정보격차·행정적 어려움·사회적 인식 등 ‘간접 장벽’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시장화가 취약계층 아동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데이터로 뒷받침하였다.
- 발표는 정부 내외 이해관계자 간 투명한 협력에 기반한 형평적·양질의 ECEC 체계 구축을 결론으로 제시하며 마무리됐다.
- 세션 1에서 Davis-Kean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왜, 어떻게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1997년 PSID-CDS(아동 551명 대상)를 활용한 초기모형(2005)과 이를 확장한 최신 모형(2021)을 각각 소개했다.
- 발표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를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성, 사회·생물학적 요인이 세대를 거쳐 전이되는 과정이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발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태아기부터 영유아기에 통과한 2018-2022년 출생 코호트를 ‘코로나세대’로

정의하고, 한국아동패널(2008년생)·한국 영유아 교육·보육패널(2022년생)·코로나세대 추적연구(2024-2028, 1차 조사 2024년) 세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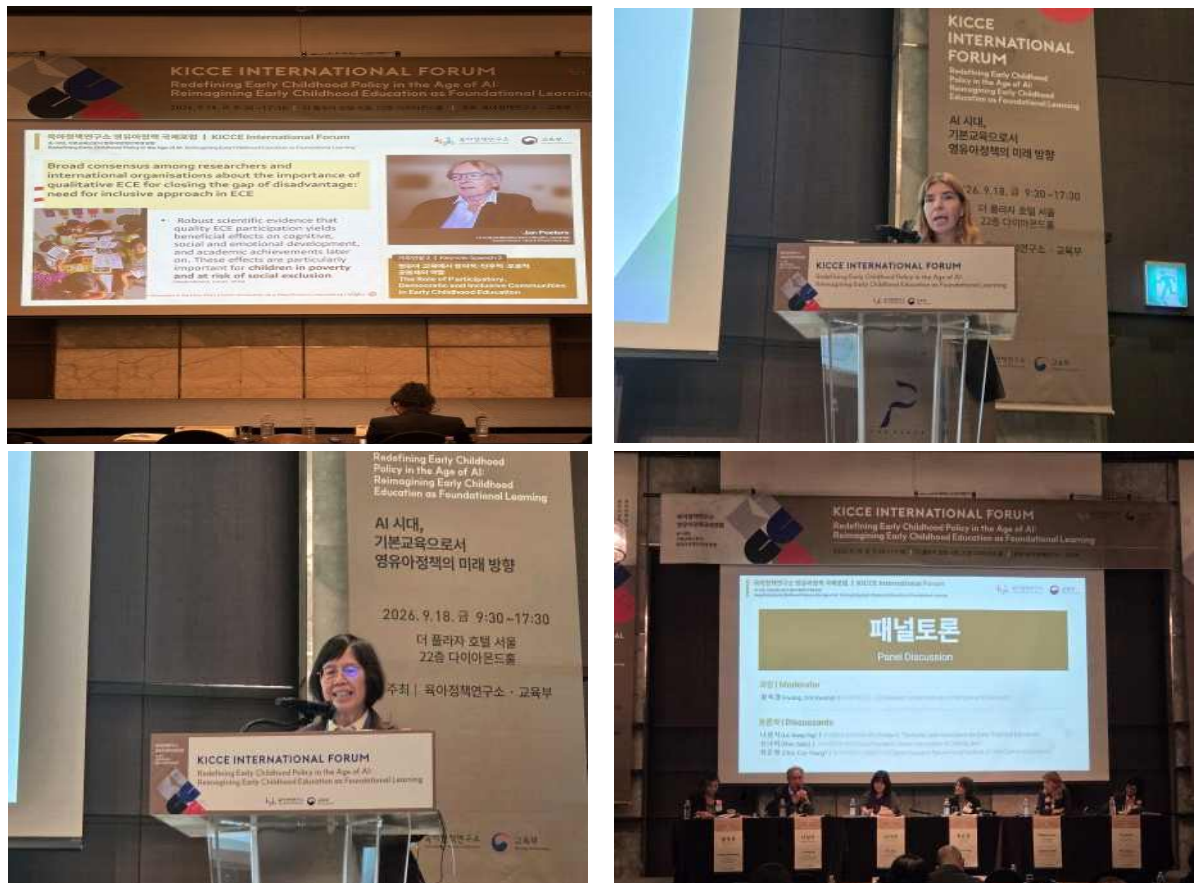
- 분석 결과, 인지·언어발달에서 코로나세대는 2008년생보다 오히려 ‘빠른 수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느림’과 ‘빠름’의 양극단 비율이 함께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잠재계층분석 결과, ‘느린 발달형’에 취약계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은 “다음 과제는 평균 뒤에 숨겨진 발달 격차와 단절을 줄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정원 한국보육지원학회 부회장, 박수경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성희 한국육아지원학회 부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을 통해 영유아기 발달격차는 아동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기회 격차’의 지표이고, 아이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발달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발달 모니터링과 회복력 있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오후 세션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 영유아 교육·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후의 기조연설은 Jan Peeters VBJK(벨기에 헨트대학교 영유아기 혁신센터) 선임자문위원이 맡았다. Peeters 선임자문위원은 「영유아 교육에서 참여적·민주적·포용적 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발표를 진행했다.
- Peeters 선임자문위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과 포용성을 개별 교사의 역량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교사와 영유아, 부모, 기관의 리더,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담당자,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진 세션 2의 주제 발표로 Stéphanie Jamet OECD 수석분석관 겸 영유아교육·보육 총괄이 「AI 시대의 영유아 교육·보육(ECEC)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Jamet 수석분석관은 AI 시대 ECEC 정책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할 것인지에 앞서 모든 아동의 학습·발달·웰빙을 위한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ECEC 본연의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Pei-Jung Lin 타이베이시립대학교(University of Taipei) 유아교육학과 전 부교수가 「유아교사를 위한 미래 대응 핵심역량: 대만은 어떻게 길러가고 있는가?」를 발표했다.
- 대만은 2012년 유보통합 이후 다양한 자격과 양성경로를 가진 교직원이 하나의 ECEC 체계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며, 교사의 최초 자격과 양성교육이 전문직 진입의 출발점이라면 실제 교육의 질은 이후 교직 생애 동안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한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 세션 2 발표 후에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나성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신나리 한국아동학회 부회장,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을 통해 AI 시대의 ECEC 정책이 단순히 ‘영유아에게 AI를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무엇을 영유아기의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가를 중심 의제로 논의하였다. 좌장을 맡은 황옥경 소장은 “오늘 나눈 지식과 통찰이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에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후속 정책연구 등에 반영할 계획이며, 발표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제포럼 행사사진 12매.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상세문의]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패널·빅데이터연구팀)

(미래교육·보육연구팀)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박은영 전문연구원

김혜진 팀장

주송희 책임행정원

02-398-7782

02-398-7790

02-398-7729

02-398-7740